

한약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한약 복용 의도에 관한 연구

이 은 영(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정 순 희(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 문 은 숙(소비자시민모임 기획처장)

1. 서 론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소득 증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소위 건강식품, 보약, 기능성 식품 등이 범람하고 있다. 더욱이 더 건강해지려고 하는 적극적인 건강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서 일반적인 식품 이외에 보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의식이 국민들 사이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이용일 외, 1991). 또한 만성질환의 증가하면서 전통 의학에서 바라보는 약식동원의 관점이 만성질환의 예방, 치료 차원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정혜경, 2001). 일반 국민들은 특정 식품에 대해 그 약효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특정 식품은 전통적으로 선호되던 한약재, 강장·강정 식품이 주류를 이룬다(안창수 외, 1990). 그 중 '한약'이라는 전통의약은 우리나라에서 고대로부터 중요한 위치를 점해 왔고 국내외에 한약자원의 공급을 담당해 오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한약재의 수요는 건강에 대한 국민 인식 구조의 전환 및 1987년 한방 의료보험의 시범 실시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다(이진만 외, 2000). 특히 한약재 수요가 급증과 수입개방으로 인해 외국산 한약재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한약재 시장 규모는 1990년대 중반 5,700억원으로 추산되며(권원달, 1997), 2000년대 초반까지 매년 증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유통한약재의 약 78~80%가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공 공정 또는 장기 저장을 위한 농약의 사용과 중국의 토양 오염에 따른 여러 가지 품질관리상에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한약재의 유해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강인호 외, 2002).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에서 중금속 및 농약 등 오염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연구 보고(이원학, 1994; 김양숙 외, 1996) 등이 있다. 또한, 최근 자료에 의하면 수입산 한약재에서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생산 및 사용이 금지된 농약인 DDT와 BHC가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강인호 외, 2002; 서울보건환경연구원, 2004; 소비자시민모임, 2005), 개별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크롬, 카드뮴, 납과 같은 유해 중금속도 함유(김종욱 외, 2002)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약재의 중금속 오염과 질적 저하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폐해가 돌아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약재의 안전관리와 국민 보건을 위한 적절한 대안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한약재 중 잔류농약 및 중금속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일부 한약재 중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 검출을 보고하고 있으며, 한약재 유통 실태, 한약의 가격 실태, 한방 시장 현황 파악 등에 대한 조사 연구가 일부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한약재의 안전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의 노출 정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한약 복용 실태나 한약의 구매 요인과 복용 의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은 한약 복용 경험뿐 아니라 향후 복용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향후 한약의 복용은 현재의 한약 복용 경험보다는 복용 의고에 의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복용 의도를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다. 한약 복용 의도는 소비자들이 한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즉, 한약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한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향후 한약 복용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약재 안전 및 품질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의 한약에 대한 인식과 향후 복용의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은 한약재의 안전관리 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문헌 고찰

1. 한약의 정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약에 대한 선호가 높아 그 효과를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한약방 또는 한의원을 이용하여 기대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는 수도 있다. 그러나 오랜 동안의 경험으로 사용되어 내려오는 전승약은 그 효능이 과학적으로 인정된 것도 많으며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바도 있다. 반면, 한의사의 처방 없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민간약의 경우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 많아서 치료제로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이 한약은 치료제와 보약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형태가 정확히 파악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약에 대한 대국민 교육홍보체계를 세울 수가 없었다(이용일 외, 1991).

한약은 일반적으로 치료제 또는 보약으로 선호되는 경향이 많으며 합리적인 판단 없이도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약은 의약품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으로서 한약 복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건강기능식품이 주로 강장, 강정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성인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과 한약이 동일한 개념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다(이은주, 1996).

기존연구에서 한약은 치료약과 보약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본 연구에서도 한약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반적인 건강식품이 아닌,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탕제원 등에서 구입한 보약과 특정 병의 치료를 위해 한의사의 진단을 받거나 한약조제사, 한약사, 약재상에서 구입한 한약으로 정의하였다.

2. 한약 복용 실태 및 한약에 대한 인식

국내에서 한약 소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한약으로 한정지어 한약 복용 실태와 복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조사한 연구는 1990년대에 가끔씩 이루어졌고 최근의 연구는 매우 드물다. 최근의 한약 복용 실태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주로 건강식품에 한방 보약을 포함하여 복용 비율이나 복용 경험, 효능에 대한 기대를 조사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주로 건강식품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이다.

한약 복용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한약을 선호하고 상당수가 한약을 복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용일 외(1991) 연구에 의하면, 보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74.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혜경 외(2001)의 연구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들의 개소주, 흑염소 등과 같은 민간요법 음식들이나 약제의 복용 비율이 16.2%에 달하고, 녹용, 인삼, 각종 보약과 같은 강장제의 복용 비율은 30.7%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녹용, 보약과 같은 전통적인 한약재에 의존하는 경향이 우리사회에서 큰 것을 보여준다.

한약의 효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용일 외(1991) 연구에서는 82.6%의 응답자가 한약이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79.1%의 응답자가 앞으로도 치료제 또는 보약으로서 한약을 복용하겠다는 높은 복용의도를 보였다. 또한 송화숙 외(2000) 연구에서도 한방 보약의 섭취 의도가 73.1%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소비자들은 한방 보약의 경우 체력 보강 효과, 신체 기능 보강 효과를 높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약의 효능과 관련된 연구로는 한약은 비만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김연섭, 2000).

한약 복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출생지, 교육정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성별, 종교, 출생지는 한약 효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용일 외, 1991).

Ⅲ. 연구 문제 및 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인구 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향후 한약 복용 의도에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2> 한약에 대한 인식은 향후 한약 복용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2. 조사도구

한약재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는 전무하여 관련 선행 연구들을 참고로 연구목적에 맞게 문항을 작성하였다. 한약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각각 7개

씩의 문항을 작성하였고, 척도는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소비자의 한약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간에 내적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를 측정하였다. 한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척도 7개 문항의 Cronbach's α 는 .60이었고, 한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척도 7개 문항의 Cronbach's α 는 .703으로 나타났다.

3. 연구방법

1) 자료 및 표본

본 연구는 설문지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연구를 위한 모집단은 통계청 2005년 인구 및 가구주택총조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 전국 15,887,254가구이며, 이 중 지역별 가구 수 비례를 고려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208가구를 다단계 무작위 추출법에 의해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은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이며, 조사대상 가구의 가족 구성원 중 첫 번째 응답한 가족구성원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조사에 앞서, 2006년 8월 20부의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본 조사는 2007년 9월 11일부터 20일까지 면접원에 의한 설문지법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지 수거 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여 208부를 최종적으로 분석 자료에 사용하였다.

2)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Window 12.0을 사용하였고,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산출하고, 한약 복용 의도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하여 향후 한약 복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한약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 인식 요인과 부정적 인식 요인으로 크게 분류하고, 한약에 대한 인식에 따른 향후 한약 복용 의도는 t-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이 19.8%, 여성이 80.8%였으며, 연령은 20대 15.4%, 30대 24.5%, 40대 27.9%, 50대 이상 32.2%였다. 학력은 고등학교 재학/졸업 53.8%, 대재 이상 46.2%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결혼한 상태가 95.2%, 비결혼(사별, 이혼, 미혼 포함) 상태가 4.8% 였다. 가구 소득은 300만원 ~ 400만원 미만 38.5%로 가장 많았고, 400만원 ~ 500만원 미만 26.0%, 300만원 미만 24.0%, 500만원 이상 11.5%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N=208)

사회 인구학적 변인		N(%)
성 별	남 성	40(19.2)
	여 성	168(80.8)
	계	208(100.0)
연 령	20대	32(15.4)
	30대	51(24.5)
	40대	58(27.9)
	50대 이상	67(32.2)
	계	208(100.0)
학 력	고등학교(재학/졸업 포함)	112(53.8)
	대재 이상	96(46.2)
	계	208(100.0)
결혼상태	결 혼	198(95.2)
	비결혼	10(4.8)
	계	208(100.0)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50(24.0)
	300만원~400만원 미만	80(38.5)
	400만원~500만원 미만	54(26.0)
	500만원 이상	24(11.5)
	계	208(100.0)

2. 한약의 복용 실태

한약의 복용 경험을 질문한 결과, <표 2>에서 보여주듯이, 전체 응답자의 93.8%가 평생 동안 한번이라도 한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1991년 이용일 외 조사에서 나타난 보약 복용 경험 비율 74.4%(이용일 외, 1991), 송화숙 외(2000) 연구에서 나타난 한방 보약 섭취 경험 70%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그간의 경제적인 소득 수준의 향상과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약 복용 경험은 설문 당시의 한약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위의 조사 결과 외에도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한약의 복용 경험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지난 1년 동안 한약을 복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3.2%, 그리고 6.7%는 현재 한약을 복용하고 있는 중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향후 한약 복용 의도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89.4%로, 이는 한방 보약의 섭취 의도가 73.1%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선행 연구(송화숙 외, 2000)결과 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한약의 복용 경험 비율이 높고, 또한 향후 복용 의도가 89.4%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여전히 전통적인 한약재의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한약의 복용 실태

N(%)

복용 실태		N(%)
평생 복용 경험	복용한 적 있다	195(93.8)
	복용한 적 없다	13(6.3)
	계	208(100.0)
최근 1년간 복용 경험	복용한 적 있다	69(33.2)
	복용한 적 없다	139(66.8)
	계	208(100.0)
현재 복용 유무	복용하고 있다	14(6.7)
	복용하고 있지 않다	194(93.3)
	계	208(100.0)
향후 복용 의도	복용의도 있다	186(89.4)
	복용의도 없다	22(10.6)
	계	208(100.0)

<표 3>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향후 한약 복용 의도

N(%)

향후 한약 복용 의도		전 체 (N=208)	향후 한약 복용 의도 있는 집단 (N=186)	향후 한약 복용 의도 없는 집단 (N=22)	X ²
성 별	남 성	40(19.2)	34(18.3)	6(27.3)	1.024 df=1
	여 성	168(80.8)	152(81.7)	16(72.7)	
연 령	20대	32(15.4)	26(14.0)	6(27.3)	3.353 df=3
	30대	51(24.5)	45(24.2)	6(27.3)	
	40대	58(27.9)	54(29.0)	4(18.2)	
	50대 이상	67(32.2)	61(32.8)	6(27.3)	
학 력	고등학교(재학/졸업 포함)	112(53.8)	99(53.2)	13(59.1)	.272 df=1
	대재 이상	96(46.2)	87(46.8)	9(40.9)	
결혼상태	결혼	198(95.2)	179(96.2)	19(86.4)	4.190* df=1
	비결혼	10(4.8)	7(3.8)	3(13.6)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0(24.0)	42(22.6)	8(36.4)	2.284 df=3
	300만원~400만원 미만	80(38.5)	72(38.7)	8(36.4)	
	400만원~500만원 미만	54(26.0)	50(26.9)	4(18.2)	
	500만원 이상	24(11.5)	22(11.8)	2(9.1)	
계		208(100.0)	186(89.4)	22(10.6)	

*p<.05 **p<.01 ***p<.001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한약 복용 의도와는 <표 3>과 같다. 결혼 유무에 따라 한약 복용 의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일(1991)의 연구에서는 결혼상

태는 한약 복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결혼상태에 따라 향후 한약 복용 의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한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건강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이를 위해 한약 복용 의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 성별, 학력,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향후 한약복용 의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한약에 대한 소비자 인식

소비자들이 한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범위에 대한 인식은 한의원에서 한의사의 진단을 받고 구입한 경우를 한약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95.2%로 가장 많았고, 한약국에서 한약사의 진단을 받고 구입한 경우는 61.1%, 한약재 판매업소(약재상)에서 구입한 경우가 38.9%, 약국의 한약조제 사로부터 구입한 경우 23.6%, 건강원 또는 탕제원에서 구입한 경우 17.3%로 나타났다. 일부 응답자는 TV 홈쇼핑에서 구입한 경우도 포함하였다. 이는 한약은 한의사 또는 한약사의 진단을 받고 구입하는 의약품이라는 인식이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건강원이나 TV 홈쇼핑에서 구입한 경우를 한약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한약을 단순히 보약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처방 없이 마음대로 복용할 수 있는 건강을 위한 식품 정도로 생각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표 4> 한약의 범위에 대한 인식

구 분	N(%)
한의원으로부터 한의사 진단을 받고 구입한 경우	198(95.2)
한약국에서 한약사의 진단을 받고 구입한 경우	127(61.1)
한약재 판매업소(약재상)에서 구입한 경우	81(38.9)
약국의 한약조제사로부터 구입한 경우	49(23.6)
건강원 또는 탕제원에서 구입한 경우	37(17.8)
TV 홈쇼핑에서 구입한 경우	11(5.3)
합 계	503(241.8) *

* 중복응답이므로 합계는 100.0을 넘음

한약의 올바른 공급과 복용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44.2%의 응답자가 약재의 원산지 표시를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는 약재의 위생적 관리, 한약 효능의 과학적 입증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수입한 한약재의 안전성 문제가 빈번히 발생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수입한 한약재에 대해 불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한약의 올바른 공급과 복용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구 분	N(%)
약재 원산지 표시	92(44.2)
약재의 위생적인 관리	35(16.8)
한약 효능의 과학적 입증	21(10.1)
가격 표시	20(9.6)
처방전 발급 의무화	19(9.1)
약국 판매 금지하고 한의원에서만 관리	12(5.8)
처방전 없는 한약 판매 금지	6(2.9)
한약재 부작용 표시	3(1.4)
합 계	208(100.0)

4. 한약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한약 복용 의도

향후 한약 복용 의도가 있는 집단과 향후 한약 복용 의도가 없는 집단 간의 한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한약 복용 의도가 있는 집단의 경우, 한약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한약 복용 의도가 있는 집단의 경우 한약 복용 의도가 없는 집단에 비해 보약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한약의 안전성을 신뢰한다, 질병치료에는 한약이 양약보다 더 효과적이다, 한약은 임신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약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 인식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6> 향후 한약 복용 의도에 따른 한약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교

한약의 긍정적 인식	집 단	향후 한약 복용 의도 있는 집단 (N=186)		향후 한약 복용 의도 없는 집단 (N=22)		t값
		평 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보약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2.74	.598	3.09	
한약으로 암 치료가능	2.86	.683	3.09	.610	-1.513	
한약의 안전성 신뢰	2.21	.564	2.82	.395	-4.916***	
질병치료는 한약이 더 효과적	2.47	.599	2.95	.653	-3.531***	
한약은 효과보다 습관 때문에 먹게 됨	2.54	.589	2.25	.671	.616	
한약은 임신하는데 도움	2.35	.543	2.86	.640	-4.075***	
한약은 다이어트 효과 있음	2.54	.616	2.95	.653	-2.946**	

*p<.05 **p<.01 ***p<.001

향후 한약 복용 의도가 있는 집단과 향후 한약 복용 의도가 없는 집단 간의 한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표 7>. 한약 복용 의도가 없는 집단의 경우, 한약에 대해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한약 복용 의도가 없는 집단의 경우 약재의 내용을 알 수 없다, 저질 약재를 수입한다, 위생상 문제가 있다, 한약의 약효에 대한 신뢰가

무족하다, 농약이나 중금속 등으로 약재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7> 향후 한약 복용 의도에 따른 한약에 대한 부정적 인식 비교

한약의 부정적 인식	집 단	향후 한약 복용 의도 있는 집단 (N=186)		향후 한약 복용 의도 없는 집단 (N=22)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격이 비싸다		1.89	.553	1.68	.646	1.616
약재 내용을 알 수 없음		2.20	.625	1.91	.610	2.100*
저질 약재를 수입함		2.30	.611	2.00	.535	2.211*
위생상 문제 있음		2.51	.599	2.18	.588	2.438*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부족		2.60	.668	2.50	.673	.678
한약의 약효에 대한 신뢰 부족		2.83	.597	2.41	.734	3.075**
농약, 중금속 등으로 약재 불안전		2.31	.517	2.00	.535	2.618**

*p<.05 **p<.01 ***p<.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지역 성인들의 한약 복용 실태 및 한약에 대한 인식과 향후 복용 의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지역 거주 208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원 20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93.8%가 한약 복용 경험이 있었고, 89.4%의 응답자가 향후 한약을 복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건강 증진을 위한 방법으로 한약을 매우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서는 결혼 상태에 따라 향후 한약 복용 의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 복용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연령, 소득 수준이나 교육 정도에 따른 향후 한약 복용 의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한약에 대한 인식과 향후 복용 의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한약 복용 의도가 있는 집단의 경우, 한약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한약 복용 의도가 없는 집단의 경우, 한약에 대해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향후 한약 복용 의도가 있는 집단의 한약에 대한 인식은 보약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한약의 안전성을 신뢰한다, 질병치료에는 한약이 양약보다 더 효과적이다, 한약은 임신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약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난 반면, 향후 한약 복용 의도가 없는 집단의 경우, 한약에 대해 약재의 내용을 알 수 없다, 저질 약재를 수입한다, 위생상 문제가 있다, 한약의 약효에 대한 신뢰가 무족하다, 농약이나 중금속 등으로 약재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소비자들은 한약의 올바른 공급과 복용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가장 많은 응답

자들이 한약의 원산지 표시 개선을 꼽았다. 이는 수입산 한약재의 농약 검출 등 사회적 사건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수입 한약재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약의 복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한약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한약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안전하고 올바른 한약 복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약 복용 비율과 향후 한약 복용 의도가 절대적으로 높아, 한약 복용 의도가 있는 집단과 한약 복용 의도가 없는 집단간의 복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한약 복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출생지 부분을 고려하지 못했고, 조사 지역 범위가 서울지역으로 한정하여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한약 복용 의도와 인식을 설명하는 데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 한약 복용 실태 및 소비자 인식, 복용 의도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약재는 우리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필수불가결한 치료수단이며, 신토불이의 측면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농산물이기도 하다. 한약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호하고 있고 또한 웰빙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건강에 기여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의 안전과 유통 상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한약재의 유통경로는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하며, 유통마진이 과다하게 지출되어 소비자나 생산자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한약재가 의약품이나 농산물 시장에서나 모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무질서한 생산 및 유통구조를 현대화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안정된 가격으로 안전한 양질의 약재를 생산, 공급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약을 선호 경향에 따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질 좋은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약재 가격의 규격화, 외국산 수입 한약재에 대한 밀반입 등 밀수 방지와 원산지 증명제 등을 통해 유통질서 확립과 품질인증제를 위한 규격화 시책 등이 하루 빨리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인호·조정희·김도훈·심영훈·김은경·김종욱·황완균·최효영(2002), 유통 한약재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모니터링-유통 한약재 중 잔류농약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본초학회지 17(2), 175~182.
- 권원달(1997), 한약재 유통실태와 개선방안. 식품유통연구, 14(1), 111~128.
- 김연섭·변승희·김상찬·고만·조웅행(2000), 비만 치료 및 예방에 대한 한약의 효능 연구, 대한본초학회지 15(2), 37~43
- 김종욱·최효영·조정희·김도훈·강인호·심영훈·김은경(2002), 한약재 유해물질 모니터링 사업 (I)-유통 한약재의 중금속에 관한 연구, 대한본초학회지 17(2), 235~245.
- 안창수·남철현(1990), 건강식품에 대한 도시지역주민의 의식조사연구, 대한건강협회지 16(2), 43~55.
- 소비자시민모임(2005), 「소비자리포트」 2005년 7·8월호.

- 송화숙·오세영(2000), 도시 중년 남성의 건강식품 섭취 경험과 의도에 관한 연구, 대한지역사회
영양학회지 5(2), 193~200.
- 이용일·변정환·남철현(1991), 도시지역주민의 한약복용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
보건협회지 17(1), 32~49
- 이은주·노승욱·이철호(1996),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Ⅱ-건강식품에 관한 소비자 의식
구조,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1(4), 487~495.
- 이진만·이상한·김환목(2000), 약용식품으로 한약재의 이용, 식품산업과 영양, 5(1), 50~56.
- 정혜경·조미숙·강남이·양은주·강명화(2001), 서울 지역 성인들의 식생활 양식유형에 따른 건강
식품 사용 현황,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6(3), 195~202.

한약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한약 복용의도에 관한 연구

허 경 옥(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교수)

주제가 매우 독창적입니다. 과거에 비해 소득수준의 향상, 고령화사회의 가속화 속에서 소비자들의 한약에 대한 관심과 구매행동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연구주제의 논문이 매우 참신하고 연구할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 연구를 계기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가 매우 명확하고 연구목적이 뚜렷합니다. 다만, 학술발표 이후 연구주제를 조금 더 확장하여 연구의 양과 질이 더 풍부해 졌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의견을 드리자면, 첫째, 예를 들면, 한약에 대한 구매 위험도 인지, 한약 구매에서 소비자가 인식하는 중요한 평가기준, 한약 복용 후 불만 및 피해, 한약효능에 대한 사전 기대감 등 다양한 변수와 연구주제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한약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인식이라는 두 개의 변수보다는 한약에 대한 태도, 또는 한약에 대한 사전기대 등의 변수로 명칭을 바꾸면 좋을 듯 합니다.

셋째, 한약복용 의사를 결정하는 변수로 웰빙에 대한 태도, 건강에 대한 소비자태도, 건강실천 행동 등 조금 범위가 넓은 변수를 선정하는 것도 이 연구의 독창성 강화에 좋을 듯 합니다.

넷째, 한약복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하거나, 여러 변수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 분석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논문은 소비자학 분야에서 분석대상 제품이나 서비스에 한약 또는 한약제조 서비스가 중요함을 알려 주는 좋은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강한 실천행동이 사회적 대세인 상황에서 이 연구는 주제 면에서 매우 참신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질적인 연구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